

2022 문화계 결산 <3> 문화

시대 노래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동주문학상' 관심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불편한 편의점'... '이명한 중단편전집' 발간
고재종·선안영·조정 등 지역 작가 문학상 수상...김동하 '한산' 주목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는 문학·출판 분야의 창작 열기가 다소 살아났다. 전염병 발병과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꿀방'에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문학인의 특권이다.

올해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10월 20-22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가의 참여는 없었지만 나름 내실 있는 행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시아 문학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는 평화에 주목하며 두 손을 맞잡았다.

행사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트렌드에 맞는 주제 설정으로 진행됐다. 대주제 아래 '마주보기', '새로보기', '함께보기' 등 3개의 세션이 조화롭게 구성됐으며 작가들은 올해의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모색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게 페스티벌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페스티벌에서 다뤄지거나 창작됐던 작품을 모티브로 2차 콘텐츠화 등 확장력 있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다. 또한 '몇몇 소수 엘리트 문학인들을 위한 아카데미' 행사는 비판은 결국 문학의 활성화와 공유·공감·확장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일보와 주간 '시산맥'이 주최하는 동주문학상은 해를 거듭하면서 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부터 운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



로 이름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전환했다. 총 230여 명이 응모한 한 올해는 34명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해 6명의 작품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2022년 동주문학상에는 안은숙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정오에게 레이스 달아주기'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서울 출신의 안 시인은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2015년 '실천문학'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호 시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운동주의 정신을 시로 구현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문금숙 시인이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전남대의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도 눈길을 끌었다. 초창기에는 전남대에 한정해 행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18개 지역 대학이 참여해 지역민과 문화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제4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지난 10월 '아시아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를 주제로 ACC에서 열렸다.

올해의 한 책은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소설은 7개의 에피소드를 매개로 편의점을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과 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웃들의 시란 고난한 이야기는 친근하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광주 시민사회 원로이자, '시대의 어른'인 이명한 소설가는 문학 반세기를 집대성한 '이명한 중단편전집' (5권)을 발간해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지역의 작가와 시인 등 각계 36명이 간행위에 참여한 것은 선생의 품이 넓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세기 동안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는 일어난지(一以貫之)의 문학정신을 견지했으며 그것은 다름아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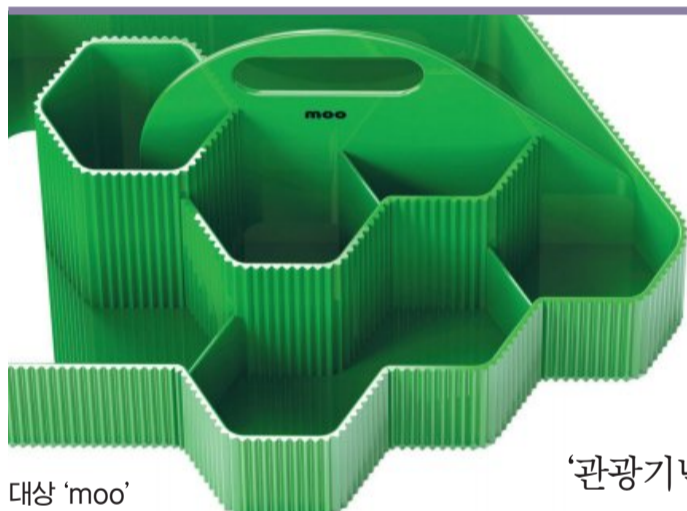
수상 소식도 잇따랐다. 담양 출신 고재종 시인은 9번째 시집 '고요를 시청하다'로 제6회 송수권시문학상 분상을 수상했다. 보성 출신 선안영 시인은 작품집 '저리 어여쁜 아홉 꼬리나 주시지'로 제22회 고산문학대상을, 영암 출신 조정 시인은 전라도 방언 시집 '그리시제라, 서남 전라도 서사시'로 노작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올해도 지역 출신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작집이 출간됐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동하 작가는 첫 역사소설 '한산'으로 주목을 받았다. 담양 출신 손택수 시인은 시집 '어떤 슬픔은 함께 할 수 없다'를 발간해 '슬픔'의 본질과 의미를 물었으며, 여수 출신 강경아 시인은 작품집 '맨발의 꽃잎들'에서 역사적 상흔의 도시 여수에 대한 작품들을 담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소환했다.

의사 시인 한경훈은 첫 시집 '귀린(鬼隣)'으로 문학계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신화적이면서도 초월적이며 한편으로 현실적인 시풍은 기존 시인들의 작품과는 다른 아우라를 선사했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은 언어와 깊은 사유, 맑으면서도 예리한 감성은 향후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광주 출신 오봉욱 시인은 해방 후 첫 민중항쟁 '화순탄광사건'을 조명한 장편 서사시 '붉은산 검은피'를, 장흥 출신 위선환 시인은 시집 '순례의 해' '대지의 노래' 등을 묶어 '위선환 시집'을 발간했다. 박관서 시인은 불의한 역사 극복 의지 담은 세 번째 시집 '광주의 푸가'를 펴냈으며 문학평론가 석연경 시인은 평론집 '생태사학의 변주'를 발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상 'moo'

광주 기억할 '굿즈'들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7점 선정...대상 오재환 'moo'
최우수상 '광주의 빛을 품은 캔들 홀더'...내년 상품화



최우수상 '광주의 빛을 품은 캔들 홀더'

'광주를 상징하는 굿즈를 만나다.' 무등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톨박스, 캔들 불빛에 의해 광주 명소 일러스트가 나타나는 '광주의 빛을 품은 캔들 홀더'.

낮선 도시로 떠나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 하나는 그곳을 추억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이 광주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것도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광주를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스토리 있는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제1회 광주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 1점 등 모두 7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중 4개 작품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도해 2023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상품화 된다.

'제1회 광주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응모작 총 155작 가운데 1·2차 전문가 심사와 네티즌 투표를 통해

모두 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오재환(서울)씨의 'moo'는 초록색으로 이뤄진 기하학적 조형성이 눈에 띄는 톨박스로 무엇이든지 수납할 수 있는 다용도 박스다. 최우수상 '광주의 빛을 품은 캔들 홀더' (남상은 이현주·충남)는 캔들 불빛을 보고 광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굿즈다.

또 우수상 '무등산의 울림' (홍현자·광주)은 무등산의 여름과 겨울 경치를 느낄 수 있는 도자기 풍경이다. 또 다른 우수상 '사시사철 광주여행' (이효진·서울)은 계절별로 총 12개의 광주 관광지를 선정, 이미지화한 탁상달력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자에게는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시민 인기상 3팀에게는 광주를 여행할 수 있는 호텔 숙박권을 부상으로 제공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YWCA 창립 100년 기념하며

광주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YWCA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23회 광주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는 김순자 단장을 비롯해 58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YWCA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연주자와 청중이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채로운 곡으로 마련됐다.

먼저 합창단이 모차르트의 '아베 인간으로 나신'과 줄리오 카치니의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국현의 '예수님 말씀하셨네', 조혜영의 '주는 포도나무', 에드윈 호킨스의 '오 해피 데이'

등 9곡을 선보인다. 이어 소프라노 박성경과 테너 김진우, 메조소프라노 신재희와 알토 가현주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지금 이 순간', 빅터 허버트의 '말괄량이 마리아타' 중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를 노래한다.

또 첼리스트 나인국, 김기용, 주윤아, 김한솔 등 4명으로 이뤄진 첼리스트 앙상블이 빌헬름 피첸하겐의 '아베 마리아',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 탕고', 모리스 라벨의 '블레로'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609-1330.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바리톤 방대진, 빼앗긴 들에서 희망 노래

2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리톤 방대진(사진)의 해방공간의 한국 가곡 프로젝트 두번째 무대가 2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2년만에 열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빼앗긴 들에서 노래하는 불과 희망을 주제로 펼쳐진다. 피아노 반주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박은식 교수가 맡는다.

이번 방대진은 총 5명의 작곡가 곡을 노래한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흥남파 작곡가의 곡을 선보인다. '봉선화'를 비롯해 '옛동산에 올라', '사랑', '사공의 노래' 등 내곡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명의 '고향생각', '조선의 노래', '희망의 나라로', '나를 깨는 처녀', '나나', '산들바람'을 노래하고 김성태의 '동심초'와 '추억'을 무대에 올린다.

또 조두남의 '선구자', '그리움'과 함께 김동진의 '봄이 오면'과 '진달래꽃'을 펼치며 마무리한다.

방대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재단 프랑스 및 독



일 가곡 연주자 과정을 이수하고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오페라 '나비부인', 오페라 '운명의 힘'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한국성악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전석 2만 원이다. 문의 010-4580-9774.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술계 결산 1위, KIAF·프리즈 공동개최

김달진미술연구소가 선정한 2022년 미술계 결산에서 1위를 차지한 이슈는 KIAF·프리즈 공동개최 및 여파가 차지했다. 이 행사에는 7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프리즈 6000억 원, KIAF 700억 원의 추정매출을 기록했다.

설문에는 미술평론가 고충환, 김성호, 김영호, 김준기, 이선영, 조은정, 하계훈,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8명이 참여했다.

2위는 개방 5개월만에 200만명이 다녀간 청와대 개방 및 활용논의가 차지했으며 3위는 지

자체와 관 차원에서 훼손이 이뤄진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사건이 차지했다.

4위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건이다. 고등학교이 그린 풍자만화로, 후원처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전 시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간섭을 한 결과, 그 역작용으로 대중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다. 그밖에 이견희 컬렉터 순회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전국 분관 추진 및 대전 확정 등이 꼽혔다. /김미은 기자 mekim@